

# 2011 고난주간 묵상집

첫째 날 (4월 18일, 월)

†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첫째 날

† 찬 송 : 365장 (통일 484장)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전처럼 기도예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도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좇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이 병들고 교회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링컨도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로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10. 1. 3, 목사님 주일설교 중에서)

† 예수님의 행적

• 성전청결과 무화과 나무 저주(마 21:12~22)

둘째 날 (4월 19일, 화)

†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둘째 날

† 찬 송 : 382장 (통일 43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42절).

교회에 왜 나오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권력의 덕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은 예수님께게서만 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덕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풍성한 능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가 “Sola Gratia”(쓸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을 왜 했느냐, 주님의 은혜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강 같은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실 이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11. 2. 27, 목사님 주일설교 중에서)

† 예수님의 행적

• 지도자들과의 논쟁(마 21:23~46)

셋째 날 (4월 20일, 수)

† 헌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셋째 날

† 찬 송 : 216장 (통일 35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7~8절).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잔치준비를 하였고, 마리아는 삼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주님을 알았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난 집이고, 병들고 버림받고 가난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졌던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고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하게 보지 않으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9. 2. 14, 목사님 주일설교 중에서)

† 예수님의 행적

•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요 12:1~8)

## 넷째 날 (4월 21일, 목)

† 섬김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넷째 날

† 찬 송 : 452장 (통일 505장)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3~15절).

기독교는 씻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죄를 두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러 오셨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겨 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발을 씻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남의 발을 씻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죄 사함 받고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남의 발을 씻어주고, 높아질 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4. 2. 15, 목사님 주일설교 중에서)

† 예수님의 행적

- 성만찬과 세족식 (마 26:17~29, 요 13:1~20)
- 예수님의 고별설교와 중보기도 (요 13:31~35; 17장)

## 다섯째 날 (4월 22일, 금)

† 고난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다섯째 날

† 찬 송 : 150장 (통일 135장)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

위로부터 주신 선물, 죄 사함의 선물, 구원의 선물! 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 무덤에 내려가심으로 무덤에 있는 우리가 살게 되고, 주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얻게 되고 건강함을 얻게 되고,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내 모든 부끄러움 다 가져 가시고, 주님이 십자가 무겁게 지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짐 다 내어놓게 되었으니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뒤덮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계는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1. 4. 8, 목사님 주일설교 중에서)

† 예수님의 행적

-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마 26:36~56)
-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마 26:57~68)
-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심 (마 27:11~26)
-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마 27:27~61)

## 여섯째 날 (4월 23일, 토)

† 부활의 십자가를 대망하는 여섯째 날

† 찬 송 : 147장 (통일 136장)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7장 65~66절).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힘은 죄요, 사망이요, 마귀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서 헤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권 세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대망하며 만나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9. 4. 12, 목사님 주일설교 중에서)

† 예수님의 행적

- 무덤에 계신 예수님과 무덤을 지키는 로마병정 (마 27:62~66)